

크론병 환자에서 infliximab 치료 후 발생한 자가면역간염 1예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소화기내과

*이순일, 허내운, 김태오, 김형준, 전기정, 이은지, 김현태

서론: 크론병 환자에서 스테로이드 및 면역억제제 치료에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인 심한 경우 항 TNF- α 항체인 infliximab가 치료에 쓰이고 있다. Infliximab 투여 후 다양한 합병증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 중 간기능 이상의 한 원인으로 자가면역간염이 보고된 적이 있으나, 아직 국내 사례는 없다. 저자들은 크론병 환자에서 infliximab 투약 중 드문 부작용으로 알려진 자가면역간염 1예에 관해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27세 남자 환자가 4년 전 크론병 진단이후 치료 없이 지내다 2년 전 복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였고, 복부 CT에서 회장루가 있어 prednisolone, mesalazine을 복용 후 증상이 완화되었다. 1년 전 복통이 다시 악화되었고, 복부 CT 소견에서 회장 말단 농양이 관찰되고, 소장 조영술에서 활동성 장루가 있어 infliximab 치료를 시작하였다. 8개월 동안 infliximab 6차 치료 이후 복통이 악화되어 응급실로 방문하였고 회장 말단 천공으로 우측 대장 절제술과 회장루 수술을 받았다. 입원 6일째 총 빌리루빈이 2.3 mg/dL, AST/ALT가 66/24 IU/L로 상승하여 복부 CT,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폐쇄성 황달을 시사하는 소견이 없어 약제 유발 간 손상으로 평가하고 항생제, tramadol 등 간 손상 유발 약제를 모두 중단한 후 경과 관찰하였지만, 입원 25일째 AST/ALT가 1042/552 IU/L까지 상승하였다. 다른 간질환을 배제하기 위해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항핵항체 정량 1:80, IgG 2063.3 (참고치, 700-1600) mg/dL였고, 항미토콘드리아항체, 항황문근항체, 항 LKM 항체, 항중성구세포질항체는 음성이었다. HAV, HBV, HCV 등 바이러스 간염에 관한 혈청검사는 모두 음성이었다. 자가면역간염으로 진단 후 입원 24일째 prednisolone 40 mg 경구 투여하였다. 스테로이드 복용 다음 날 대장의 수술 봉합부 궤양 출혈이 있어 내시경 지혈술을 받았고, 지혈 확인 후 tacrolimus로 변경 투약하였다. 입원 31일째 AST/ALT 142/122 IU/L로 감소하고, 통증 등의 증상이 호전되어 퇴원하였다. 외래에서 tacrolimus에 의한 신경독성, 콩팥독성 있어 투약을 중단하고 prednisolone 5 mg/일 및 azathioprine 50 mg/일로 다시 변경하였다. 회장루 복원 수술 후 prednisolone 5 mg/일 단독 요법 유지 중이며 정상 간기능으로 경과 관찰 중이다. **결론:** 한국인 크론병 환자에서도 infliximab 치료 후 간기능 이상이 발생할 경우 자가면역간염을 감별 진단에 포함시켜야 한다.

국소 항암 방사선 치료 및 sorafenib 병용 투여 후 간이식 시행한
진행성 간암 환자에 대한 증례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¹소화기내과, ²외과, ³방사선 종양학과*유은진¹, 신혜선¹, 김승업¹, 주동진², 최기홍², 성진실³, 한광협¹

조기 간세포암 환자에서 현재까지 간이식의 적응증으로 Milan criteria가 널리 쓰여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UCSF expanded criteria, up-to-7 criteria 등의 확장된 적응증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다양한 선행치료를 통해 진행성 간세포암의 병기를 감소시켜 간이식을 시행하려는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증례에서는 B형 간염, 간경화, 진행성 간세포암으로 진단 당시 Milan criteria에 적합하지 않아 동시적 항암 방사선 요법 후 반복적 간동맥 항암제 주입술 및 sorafenib의 병용 치료 후 병기가 축소되어 간이식을 시행받은 경우를 보고하고자 한다. 52세 남환으로 2009년 11월 복부 통증 및 체중감소 주소로 내원하여 B형 간염, 간경화(Child-Pugh class A), 진행성 간세포암(T2N1M0, stage IVa)을 진단받았으며 심장박동기 리듬 조절 전이 소견이 보였다. 진단 당시 간이식의 적응증에 적합하지 않아 5주간의 동시적 간동맥 항암 방사선 치료 후에 추가로 9번의 반복적 간동맥 항암제 주입술을 4주 간격으로 시행받았다. 간동맥 항암 치료 기간 및 이후에도 총 2년간의 sorafenib 400 mg 하루 2회 경구투여를 지속하였고 특이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다. 2013년 3월 추적 관찰 평가에서 종양의 크기가 진단 당시 14.5 cm에서 6.4 cm으로 감소 및 림프절 전이소견도 보이지 않아 UCSF expanded criteria에 적합하여 2013년 4월 생체 간이식을 시행받은 후 16개월 이상 재발소견 없이 생존 중이다. 본 증례를 통하여 국소 항암 방사선 요법 및 sorafenib 동시 치료가 특이 부작용 없이 진행성 간세포암 환자에서의 간이식의 적응증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